

## 4-5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욥의 세 친구는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욥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였으나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자 그들은 욥과 논쟁하기 시작한다. 세 사람이 세 차례 논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엘리바스이다(참조, 42:7). 그의 주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 첫째 부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1-11)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듣고서 위로의 말을 시작하는데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 다른 사람을 권고하던 욥이 재난을 당해서 놀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 것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3-6).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고 권하고,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고 하였다. 욥은 전능자가 자신을 쳤다고 하지만 그는 “악을 밟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4:8)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라고 권하였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위한 것을 사자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 ‘사자’, ‘사나운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암사자’를 들어서 사자처럼 힘이 있는 맹수도 모두 죽고 그 새끼가 흠어지는 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였다. 사자와 같이 다른 짐승을 삼키는 맹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욥의 육체에 큰 질병이 생긴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여호와와의 심판이라고 말하였다.

### 둘째 부분: 환상에 근거한 논증 (4:12-21)

엘리바스는 또한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다(4:12-21). 그는 ‘무슨 말씀’을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상을 신비한 방식으로 말한다. 그는 자기 몸의 털이 쭈뼛할 정도로 두려운 형상이 지나가면서 내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4:12-16).

환상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잡고 나서 그가 들었던 소리의 내용을 말한다. 어떤 영이 전한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sup>51)</sup> 의롭겠느냐?, 거룩하겠느냐?’ 하는 말이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나 심부름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종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은 쉽게 부스러질 것이다.

엘리바스가 ‘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가 본 영(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4:15).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영을 보면서 들었던 말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한 점은 사탄이 여호와에게 했던 말이다. 엘리바스는 이 점에서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52)</sup>

### 셋째 부분: 경험에 근거한 논증 (5:1-7)

51) 개역은 ‘하나님보다’로 옮겼으나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조, 9:2; 14:4; 15:4; 25:4 등.

52) 크리스토퍼 애쉬, 『욥기』, 138.

엘리바스는 욥이 부르짖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에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분노나 시기의 마음을 품는 것이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일임을 말한다. ‘내가’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그의 자식이 비참하게 되고 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보았던 사실을 이야기한다.

#### 넷째 부분: 겸손하라는 권고 (5:8-16)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본 환상과 경험을 통하여 논증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라고 권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는데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하고 자기의 죄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죄에 빠지게 하신다. 그렇지만 곤비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신다.

#### 다섯째 부분: 복종하라는 권고 (5:17-27)

엘리바스는 전능자의 경책을 바르게 받는 것이 지혜의 길임을 가르쳐 준다. 여섯 환난이나 일곱 환난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징계에서도 그분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기근이나 전쟁, 거짓 고소와 멸망에서도 구원을 얻고 들짐승과도 화친하게 되어 많은 추수를 하고 자녀도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그분의 징계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므로 순하게 징계를 받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욥을 권한다.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들 중에 신약에 인용된 구절이 있다. 5:13, 17이 신약에서 각각 인용되는데(고전 3:19; 히 12:5) 그 말 자체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과 탄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정당한 말도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말이 되었다. 비유하자면 좋은 벽돌을 사용했으나 좋은 집을 짓지는 못한 것이다.<sup>53)</sup>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한 요점은 그의 불행은 그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1-2장에 비추어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사탄과 비슷하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엘리바스의 논법도 그와 같다. 욥의 비참함의 원인은 그가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종교적인 환상과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알지 못하고 있고, 그의 논법은 사탄의 주장과 같다. 욥의 고난의 배후에는 어떠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한 신령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쉬운 도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였고, 그것이 욥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욥은 큰 고난 가운데서 답변을 시작한다.

53) 코넬리스 베일,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사, 욥』, 72.